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 통합연구방법의 적용

김 현 정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최 은 영\*

(충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차와 센터이용기간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1차 연구는 아동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주요변수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남-녀 차이의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통합방법을 적용하였다. 1차 연구의 결과 첫째, 성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달랐다. 여아에게는 부모자녀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사회적자본도 비슷한 영향을 보였다. 반면 남아의 자아존중감에는 학교 사회적 자본만이 중요했다. 둘째,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남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빈곤 계층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사회적 자본이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성별과 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예상밖에 크게 나타난 성차에 대한 추가 탐색을 위해 2차연구가 질적방법으로 수행되었는데, 2차 연구에서는 의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주제를 찾은 후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활동목구가 현재의 센터프로그램 틀 내에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 센터 내 다른 학년 아동과의 적응에서 남아가 어려움을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결국, 향후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러한 남-녀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내용의 다양화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센터이용이 저소득가정 남아에게도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프로그램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남녀차이, 통합연구방법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최은영, 충북대학교(eychoi66@cbnu.ac.kr)

■ 투고일: 2013.10.31    ■ 수정일: 2013.12.16    ■ 게재확정일: 2014.1.18

## I. 서론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제도화되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및 아동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12년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4,036개소가 있으며 108,357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이용 아동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이 64.3%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이 21.9%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아동도 포함되어 있다(13.8%). 즉,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 중 80%이상은 빈곤계층에 속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0.3%, 초등학생이 99.7%이며, 초등생 중에서는 저학년이 47.3% 고학년이 52.7%로, 고학년의 비중이 높다.

이렇듯 아동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신체·정서상의 발달에서 인지·심리사회발달까지 아동의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신원영·강현아, 2008; 구인회 외, 2009). 빈곤계층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격성, 우울, 위축 등 부적응 문제와 낮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onger & Elder, 1997; Loeber, 1990; McLeod & Shanahan, 1993; Velez et al., 1989; 허남순, 2005; 임춘희 외, 2010 재인용).

특히 아동기는 가정에서 학교 등으로 생활환경이 확대되면서 또래관계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사회적인 관계에 필요한 기술들을 향상시키는 시기로 향후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발달중 하나는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이다(최희철·김병석, 2009; 박성연, 2010). Erikson은 아동기는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습득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면 유능감을 경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 또는 무능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박성연, 2010 재인용).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아동청소년 시기의 전반적인 삶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으로 가정환경, 또래집단, 학교 등을 언급하고 있다(Jessor, 1992; 김연희·김선숙, 2008 재인용; 이운경·도현심, 2005; 구인회 외, 2009).

이들 중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환경이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직접 아동에게 전달되기 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가 양호할수록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며(Robinson, 1995: 임연진·나유미, 2003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깝게 느낀다고 보고되어 있다(Field et al., 1983: 임연진·나유미, 2003 재인용). 이렇게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지만 빈곤계층 아동들에게는 열악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아동기에는 점차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래, 교사 등으로 대인관계가 확장되면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아동들 둘러싼 가족외 다른 환경체계와의 관계도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내 환경체계와의 관계 역시 빈곤계층 아동들에게 부모자녀관계만큼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가족내의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아동들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체계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들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연희·김선숙, 2008; 김은정, 2006; 김창곤, 2006; 신원영·강현아 2008; 이경은·주소희, 2008; 이봉주 외, 2010).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다(Lin, 2001).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기초하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김연희·김선숙, 2008). Coleman(1988)과 Woolcock(2001)은 사회적 자본이 개인에게는 희소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빈곤층에게는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을 갖지 못해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인적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이 자신이 속한 계층에 상관없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용한 자원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은 서로 다르다. 또한 성인에게 있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배태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유리한 도구로 활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활용·측정 가능하지만(Lin, 2001), 아동에게 있어서는 아

동발달이나 학업성취 등과 관련해서 주로 다루어지며, 사회적 자본의 활용 및 측정이 성인에 비해 한정적이다. 더욱이 아동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 즉 아동의 사회적 자본은 아동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자본이 전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아동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아동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곤 아동들에게는 사회환경에서 획득한 사회적 자본이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도 부모자녀관계나 사회적 자본의 획득과 활용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분석한 김태준 외(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주변 사람과의 접촉의 질과 양, 부모와의 대화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지역아동정보센터, 2010)를 보면 성차에 따라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며, 우울·불안, 위축과 같은 내현화 문제는 여자아동이 높고, 공격성·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남자아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적 적응의 차이를 의미한다.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원인 만큼 접촉 빈도나 집단의 참여 기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국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과 학업성취에 관한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다룬 가족내 사회적 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증적 자료를 통한 빈곤아동의 발달과 통합적인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성차에 따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계층 아동들이 대부분인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들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와 아동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지역사회 내 아동이 획득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아동기 발달에 핵심적 과제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차 및 센터이용기간에 따라 파악해 보았다. 2011년에 이루어진 1차연구에서는 양적조사를, 2012년에 이루어진 2차연구에서는 질적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영향여부 및 남녀 간 차이를 고찰하고, 특히 빈곤가정 아동들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조직 속에서 획득한 사회적 자본이 성차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남·녀 아동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특화된 개입전략과 프로그램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계는 그동안 많은 사회교육학자들이 아동들의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발달과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목해온 개념이다(Epstein, 1990: 김은정, 2006 재인용).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차적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심리적 안정과 성격을 형성해 나간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 수용적인 경우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희수, 2005; 정문자·여종일, 2009), 부모의 방임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지은·최미경, 2004). 그러나 빈곤가정에서는 부모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크며 자녀에게 충분한 역할모델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성격형성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Conger et al., 1992: 석주영·박인전, 2009 재인용).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등 가족내 상호작용의 양을 측정하거나(김현주·이병훈, 2007; 안우환, 2006; 한주리·허경호, 2005). 부모의 양육 태도에 중점을 둔 연구 등이 있으며(한주리·허경호, 2005; 정문자·여종일, 2009), 최근에는 부모관심, 상호이해 등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가족내 사회적 자본으로 파악을 하고 아동의 학업성취나 발달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연희·김선숙, 2008; 김은정, 2006; 안우환, 2009; 이경은·주소희, 2008; 이재훈·김경근, 2007). 김은정(2006)은 부모의 기대,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통제 및 자녀의 학교교육 참여가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관계를 가족내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자본과 구분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고,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 학교교육 참여활동, 자녀 교우 및 사회적 관계망 관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통제와 훈육 등의 하위변인들로 부모자녀관계를 구성하였다.

## 2.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인적, 문화적 자본과 달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다(Coleman, 1988; Lin, 2001).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사회적 자본은 아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로서 규범, 참여, 네트워크, 호혜성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사회적 자본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박통희, 2010; 김태준 외 2010). 특히 사회적 자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자본들과 구별된다(장미혜 외, 2009).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정의와 논의가 조금씩 다르지만<sup>1)</sup>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축적되며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삶과 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확장된 사회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한다(Coleman, 1988; Schuller, 2001).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가족, 이웃, 취미모임, 지역사회조직 등 수많은 미시적 연결망들을 통해 존재한다고 보며, 사회단체나 집단의 가입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Coleman(1988)은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체계와의 관계의 맥락에서 지역 사회적 자본을 구분하고 아동의 학업성취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적 자본이 아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Wilson(1991)은 이웃 간의 통합성이나 상호신뢰, 주민간의 상호감독과 역할 모델 등을 통하여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부모들 간의 관계나 연대의 수준, 아동교육에 대한 상호 감독 및 신뢰, 집합적 규범에 따라 아동발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Braatz & Putnam, 1996; 김광혁, 2008 재인용). 즉, 지역사회의 신뢰와 참여수준이 낮은 경우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들의 포래

1) 사회적 자본의 연구는 크게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자본을 거시적 및 미시적 접근에서 살펴보면, 거시적 접근은 공동체나 집단전체의 측면에서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의 속성을 강조하며(Putnam, 1993; 박세경 외, 2008 재인용), 미시적 접근은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유석춘·장미혜, 2003). Bourdieu(1986), Coleman(1988)은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집단이나 개인들의 관계망을 통한 사회자본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고, Putnam(2000)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정치와 연관된 사회적 자본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이봉주 외, 2010 재인용).

관계와 학교에서의 자원도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또래집단 및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규범이나 가치 등이 모방, 학습되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경은·주소희, 2008; Jencks & Mayer, 1990; Pinketon & Dolan, 2007).

사회적 자본이 개인에게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아동과 지역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적 자본이 빈곤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적 자본 하위변인들로 지역아동센터, 학교, 지역사회 영역을 구분하였다.

### 3.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

아동은 성장, 발달하는 존재로서 각 발달단계에서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의 균형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빈곤가정 부모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모가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그 결과 빈곤가정의 아동은 부모와 의미있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여 부모로부터 적절한 통제와 애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희숙, 1983; 이현승, 2008 재인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체계들과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Lin, 2001). 즉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심리 발달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원영(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며, 특히 부모의 태도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부모자녀 간 대화빈도가 높고, 대화 태도가 개방적일 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2006)의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부모와의 애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의 물적·인적 자원은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와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정 환경이외에도 아동이 맺고 있는 지역사회자원, 즉 사회적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양육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지해 주는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사회적 지지체계가 풍부할수록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인이 되어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Putnam, 2000; Morrow, 2000;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재인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연구한 이훈과 신혜중(2008)은 가족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조손 및 위탁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낮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친구의 지지, 교사의지지 역시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은데, 사회관계 측면에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정기원, 2006; 이현송, 2008). 이것은 부모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영향이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족한 부모자녀관계가 또래관계나 지역사회에 의해 일정 부분 보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더불어 빈곤 아동에게는 사회적 자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자원의 영향력에 성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성차에 주목하고자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영향을 이용기간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이용기간 2년<sup>2)</sup>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

2) 센터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자본을 측정할 만큼 센터를 옮긴 적이 있는 학생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하위집단을 나눌 때 기간 기준에 따라 지나친 편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2년이 기준으로 활용되었음(2년 미만 50.5% vs. 2년 이상 49.5%).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적연구로 진행된 1차연구에 이어 질적방법으로 2차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통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s)을 적용하였다. 통합연구방법은 아직 아동분야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강점을 활용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방법론이다(Teddlie & Tashakkori, 2003; Creswell & Plano Clark, 2007; 김영천 외, 2011 재인용). 1차연구에서 남-녀 간 변수의 영향력에서 나타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고, 예상밖에 크게 나타난 성차에 대한 맥락적 해석을 위해 2차연구를 연속하여 진행하였다. Greene et al.(1989)가 제시한 통합연구방법의 다양한 목적 중 본 연구는 첫째, 결과의 수렴성 탐색 둘째, 1차연구의 결과에서 2차연구의 질문을 도출하는 정보의 순차활용 두 가지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

#### 1. 1차연구: 양적 방법

##### 가. 연구대상 및 기간

서울,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5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초등 저학년보다 초등 고학년의 비중이 높고(2012년말 기준, 각각 47.3%와 52.7%), 본 연구에서 중요한 사회적자본이라는 변수의 특성 상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상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인지가 발달하고 학업성취를 다른 아동과 비교하면서 초등 저학년 때 유아기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가, 고학년부터 자신의 약점과 강점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통합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점차 회복된다는 연구(Trzesniewski et al., 2003)에 근거해 볼 때, 초등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이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해당기관에 전화를 통해 취지 설명을 한 후 조사에 응한 서울소재 지역아동센터 8개소, 청주시 20개소, 충북내 군 지역(청원, 영동, 진천, 음성, 증평, 보은, 괴산, 옥천) 2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는데, 청원군과 청주시는 센터교사 및 센터장이 설문을 지도·회수한 것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응답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30명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11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행하였다. 질문지는 총 650부를 배부하여 556부(회수율: 85.5%)가 회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3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2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나. 측정도구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이은경(2010)이 변안한 것을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평가에 대한 긍정적 태도 5문항과 부정적 태도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태도에 관한 문항(6~10번)은 자료입력 시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관계 변수는 안우환(2006)이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 질문지중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한 신원영(2007)의 질문지를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의 특성에 맞는 문항을 중심으로 총 1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 중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이세용(1998)과 McNeal(1999), Parcel과 Dufur(2001)의 연구물을 토대로 제작한 정은정(2002)과 신원영(2007)의 사회적 자본 문항을 지역아동센터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정은정(2002)의 연구물과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패널조사 설문지에서 관련문항을 선정하여 제작한 신원영(2007)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변인에 따른 측정도구

변 인		문항수	구성내용	신뢰도계수	
종속 변인	자아존중감	10	.긍정적 태도 5문항 .부정적 태도 5문항	.80	
독립 변인	부모자녀관계	10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4문항) .학교교육참여활동(1문항) .자녀 교우 및 사회적 관계망 관심(1문항) .부모의 미래기대(2문항) .부모의 통제와 훈육(2문항)	.75	
	사 회 적 자 본 <sup>3)</sup>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	11	.또래관계에 대한 신뢰, 친밀도 및 교류, 도움(4문항) .교사관계에 대한 신뢰, 관심, 지지, 정보획득(5문항) .활동참여, 호혜성(2문항)	.89
		학교 사회적 자본	11	.또래관계에 대한 신뢰, 친밀도 및 교류, 도움, 정보 획득(4문항) .교사관계에 대한 신뢰, 도움, 지지, 정보획득(4문항) .활동참여, 호혜성(3문항)	.87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7	.지역사회신뢰 및 교류(2문항) .본인 및 부모의 지역사회 참여(3문항) .지역사회도움(1문항) .지역사회 감독(1문항)	.69
통제 변인	학업성적 거주지 가족형태		.아동의 학업성적 .서울시, 청주시, 군지역(시지역=1, 군지역=0) .일반, 모,부자, 조손(일반가정=1, 기타=0)		

#### 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기초분석,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F-test,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인들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사회적 자본의 세 하위영역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여아: 지역아동센터-학교(.62\*\*\*), 학교-지역사회(.55\*\*\*),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60\*\*\*)/ 남아: 지역아동센터-학교(.63\*\*\*), 학교-지역사회(.68\*\*\*),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53\*\*\*).

## 2. 2차연구: 질적 방법

양적연구로 진행된 1차연구에 이어 질적방법으로 2차연구를 수행하였는데, Greene et al.(1989)가 제시한 통합연구방법의 다양한 목적 중 결과의 수렴성 탐색, 1차연구의 결과에서 2차연구의 질문을 도출하는 정보의 순차활용 두 가지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 이와 같은 순차적 통합연구방법 적용을 통해 1차연구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분석결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해석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표 2. 인터뷰 참여자 명단

번호	연령	성별	가족형태	가족구성원	센터이용기간
1	13	남	모자가정	모, 누나	약 1년 6개월
2	13	남	차상위계층	부, 모, 형	약 6년
3	12	남	부자가정	부, 조모, 계모	약 4년
4	11	남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형, 누나	약 1년
5	13	남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형	약 1년 6개월
6	11	남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형, 동생	약 3년
7	13	남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누나	약 8개월
8	12	남	부자가정	부, 조모	약 5년
9	11	남	다문화가정	부, 모, 남동생	약 3년
10	12	남	모자가정	모, 남동생	약 4년
11	12	여	부자가정	부	약 3년 6개월
12	12	여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오빠	약 10개월
13	12	여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언니2, 남동생	약 3년
14	13	여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언니, 남동생	약 4년
15	12	여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약 2년
16	13	여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여, 남동생	약 4년
17	12	여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오빠	약 3년
18	12	여	일반저소득가정	부, 모, 오빠, 여동생	약 5년
19	13	여	부자가정	부	약 3년
20	12	여	모자가정	모, 언니	약 1년

2차연구는 충북지역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0명(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의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2회의 심층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2011년 8월 26일부터 2012년 5월 18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인터뷰 대상아동은 조사시점 당시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6년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한편, IRB 차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에 앞서 아동에게 자필기재한 면접동의서를 받았다. 면접동의서는 면접내용을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면접내용 인용 시 가명처리를 하며,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아동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고 면접내용의 연구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IV. 연구결과

### 1. 1차 연구

####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대상자들의 성별분포는 남자아동이 44.0%(229명), 여자아동이 56.0% (291명)이었고,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 27.6%(143명), 5학년 33.9%(176명), 6학년 25.2%(131명), 중학교 1학년이 13.2%(69명)의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센터이용기간은 2년 미만 50.5%(263명), 2년 이상 49.5%(258명)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은 상위권 21.6%(108명), 중위권 52.3%(262명), 하위권 26.1%(131명)이었다.

거주지는 서울시 16.9%(88명), 청주시 41.3%(215명), 군소재지 41.8%(218명)이다. 가족형태는 모자가정 14.6%(75명), 부자가정 12.8%(66명), 일반가정 63.7%(328명), 조손가정 5.4%(28명), 기타 3.5%(18명)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잘 사는 편이다 25.0%(125명), 보통이다 67.7%(339명), 못 사는 편이다 7.4(37명)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은 아동의 44%가 응답을 못 하였으며, 응답자중 고졸 66.1%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이 2.4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모의 학력도 응답자중 고졸 74.7%로 가장

높았고, 중졸이하가 4.4%로 가장 낮았다. 부의 직업은 기능·생산직이 2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타 16.9%, 자영업 15.2%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은 주부로 응답한 것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22.1%, 서비스업종사 12.7%, 기능·생산직 11.4% 순으로 나타났다.

#### 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8, p<.05$ ).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하위권 아동에 비해 상위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7.72, p<.001$ )(표 3 참조). 부모자녀관계는 <표 4>와 같이 남자아동에 비해 여자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상위권인 아동이 하위권인 아동에 비해서 부모와의 관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7.03, p<.001$ ).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일반가정과 모자가정 아동들이 부모들과 관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반적 배경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

변수		자아존중감	
		N	M(SD)
성별	남	229	2.92(.47)
	여	291	3.01(.51)
	t	-2.18**	
학업성적	상	108	3.13(.51)/a
	중	262	3.01(.46)/ab
	하	131	2.78(.48)/b
	F	17.72***	

주: \* $p<.05$ , \*\* $p<.01$ , \*\*\* $p<.001$ .

표 4. 일반적 배경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차이

변수		부모자녀관계	
		N	M(SD)
성별	남	229	2.73(.47)
	여	291	2.86(.52)
	t	-2.89**	
학업성적	상	108	2.93(.51)/a
	중	262	2.81(.49)/ab
	하	131	2.69(.48)/b
	F	7.03***	
가족유형 <sup>4)</sup>	모자가정	75	2.85(.51)/a
	부자가정	66	2.70(.56)/ab
	일반가정	328	2.84(.49)/a
	조손 및 기타	46	2.60(.43)/b
	F	4.57**	

주: \*p<.05, \*\*p<.01, \*\*\*p<.001.

표 5. 일반적 배경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변수		사회적 자본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		학교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N	M(SD)	N	M(SD)	N	M(SD)
성별	남	229	2.93(.57)	229	2.91(.57)	229	2.79(.57)
	여	291	3.08(.52)	291	3.07(.52)	291	2.79(.54)
	t	-3.15**		-3.43***		.19	
센터 이용기간	2년 미만	263	2.97(.53)	263	2.95(.55)	263	2.78(.56)
	2년 이상	258	3.06(.55)	258	3.05(.54)	258	2.81(.54)
	t	-1.96*		-2.15*		-.70	
학업성적	상	108	3.14(.56)/a	108	3.15(.54)/a	108	2.91(.55)/a
	중	262	3.00(.55)/a	262	3.02(.53)/a	262	2.77(.56)/b
	하	131	2.93(.51)/b	131	2.83(.55)/b	131	2.76(.50)/b
	F	4.51**		11.06***		3.04*	

주: \*p<.05, \*\*p<.01, \*\*\*p<.001.

<sup>4)</sup> 설문지를 배부할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 '조부모님과의 관계'로 응답하도록 지도하고, 설문지를 취합함.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과 학교 사회적 자본 모두, 남자아동에 비해서 여자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5 참조). 센터이용기간에 따라서도 이용기간이 2년 미만인 아동에 비해서 2년 이상인 아동이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중·상위권 아동이 하위권 아동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과 학교 사회적 자본이 모두 높았고,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성적이 상위권인 아동이 중·하위권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다. 성별 및 센터이용기간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1)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적 자본이 남녀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Model 1에는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으로 학업수준, 가족형태, 거주지, 부모자녀관계를 투입하였다(표 6 참조)<sup>5)</sup>. 여자아동과 남자아동 모두 학업성적, 부모자녀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Model 2에서 여자아동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인 중 지역아동센터사회자본( $\beta=.19, p<.01$ ), 학교사회자본( $\beta=.22, p<.01$ )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Model 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학업수준과 부모자녀관계도 여전히 유의하였다. 여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자녀관계이지만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도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아동은 Model 2에서 학교 사회적 자본( $\beta=.42, p<.001$ )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Model 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학업수준의 영향력은 사라졌고, 부모자녀관계( $\beta=.14, p<.05$ )는 수치가 감소하였다. 즉, 남자 아동들은 학교 사회적 자본 수준과 부모자녀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기초분석에서 학년(연령)별로 주요변수에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에 다변량분석에 통제변수로 포함시키지 않았음.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동질성이 있는 표본을 연구대상으로 하다보니, 연령에 따른 variance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됨.

표 6.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적 자본이 남녀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여자아동		남자아동	
			표준화된 β		표준화된 β	
			Model 1 (SE)	Model 2 (SE)	Model 1 (SE)	Model 2 (SE)
자 아 존 중 감	통제변수	학업수준	.24***(.04)	.20***(.04)	.13*(.04)	.07 (.04)
		가족유형	.05 (.04)	.06 (.03)	.01 (.04)	-.05 (.03)
		거주지	-.02 (.04)	-.01 (.04)	.10 (.04)	.12 (.04)
	독립변수I	부모자녀관계	.41***(.05)	.23***(.05)	.23***(.06)	.14* (.07)
	독립변수II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		.19**(.06)		-.13 (.07)
		학교 사회적 자본		.22**(.06)		.42***(.07)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01 (.06)		-.01 (.07)
	ΔR <sup>2</sup>			.09***		.11***
	R <sup>2</sup>		.25	.33	.07	.17
F		24.59***	21.10***	5.25***	7.36***	

주: \*p<.05, \*\*p<.01, \*\*\*p<.001.

2) 센터이용기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적 자본이 여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기초분석에서 센터 이용기간에 따라 사회적자본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센터이용기간에 따라 하위집단을 나누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기간이 2년미만인 여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Model 1에서 학업수준( $\beta=.21, p<.01$ )과 부모자녀관계( $\beta=.48, p<.001$ )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사회적 자본이 추가된 Model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가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업수준과 부모자녀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여아의 Model 1에서 학업성적, 부모자녀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Model 2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인 중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과 학교 사회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수준( $\beta=.23, p<.001$ )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왔다. 한편 Model 1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보였던 부모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

이 없어졌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여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여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각 변인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며 다음이 학교 사회적 자본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여아에게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센터에서 형성된 사회적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표 7. 센터이용기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여자 아동)

종속 변인	독립 변인		2년 미만		2년 이상	
			표준화된 $\beta$			
			Model 1 (SE)	Model 2 (SE)	Model 1 (SE)	Model 2 (SE)
자 아 존 중 감	통제변수	학업수준	.21** (.05)	.19* (.06)	.27***(.06)	.23***(.05)
		가족유형	.02 (.05)	.03 (.04)	.06 (.05)	.09 (.05)
		거주지	-.03 (.05)	-.02 (.05)	-.02 (.06)	-.02 (.05)
	독립변수I	부모자녀관계	.48***(.08)	.40***(.09)	.36***(.07)	.10 (.07)
	독립변수 II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		.04 (.10)		.32***(.09)
		학교 사회적 자본		.14 (.10)		.27**(.09)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01 (.09)		-.03 (.08)
	$\Delta R^2$			.02		.19***
	R <sup>2</sup>		.27	.28	.22	.41
F		13.36***	8.17***	11.99***	15.81***	

주: \*p<.05, \*\*p<.01, \*\*\*p<.001.

3) 센터이용기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적 자본이 남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표 8. 센터이용기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남자 아동)

종속변인	독립변인		2년 미만		2년 이상	
			표준화된 β			
			Model 1 (SE)	Model 2 (SE)	Model 1 (SE)	Model 2 (SE)
자아존중감	통계변수	학업수준	.12 (.06)	.03 (.06)	.14 (.07)	.12 (.05)
		가족유형	.03 (.05)	-.02 (.04)	.02 (.06)	-.06 (.06)
		거주지	.10 (.06)	.17 (.06)	.01 (.07)	.00 (.07)
	독립변수 I	부모자녀관계	.21* (.09)	.15 (.09)	.25* (.10)	.14 (.12)
	독립변수 II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		-.02 (.10)		-.33* (.10)
		학교 사회적 자본		.36** (.10)		.66*** (.14)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06 (.10)		-.22 (.13)
	ΔR <sup>2</sup>			.12***		.14**
	R <sup>2</sup>		.04	.15	.07	.19
F		2.36	4.17***	2.73*	4.08***	

주: \*p<.05, \*\*p<.01, \*\*\*p<.001.

센터 이용기간이 2년 미만인 남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Model 1에서(표8 참조), 부모자녀관계( $\beta=.21$ ,  $p<.05$ ) 변수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인 중 학교 사회적 자본( $\beta=.36$ ,  $p<.01$ )이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부모자녀관계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즉, 학교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남자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Model 1에서 부모자녀관계( $\beta=.25$ ,  $p<.05$ ) 변수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변인 중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 $\beta=-.33$ ,  $p<.05$ ) 과 학교 사회적 자본( $\beta=.66$ ,  $p<.001$ )이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Model 1에서 영향

력을 보였던 부모자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특히 이 모델에서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남자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즉 장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남자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 사회적 자본이 높을 수록 남자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사회적 자본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아동들과 다르게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남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서는 1차 연구 데이터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우며, 추가 연구를 통해 의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 2. 2차 연구

2차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20명의 아동은 일반저소득가정 11가정, 부자가정 4가정, 모자가정 3가정,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이 각각 1가정씩이었다.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은 설명적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므로(김미영, 2013),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전사, 범주화 작업, 주제의 발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중요한 주제를 찾은 후 명확히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과 관련한 주요한 주제로 이용 동기 및 또래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프로그램 내용과 공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 등의 주제가 묶였고, 표 9에는 그 의미를 아동의 시각에서 재명명하여 제시하였다.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에게서 동일한 주제군인데도 일부 상이한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는데<sup>6)</sup>, 남자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 마지못해 오는 경우가 많았고, 또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센터에서 만나는 저학년과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여자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만 이용하는데 따른 낙인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면서도, 센터에서 만나는 또래나 선후배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프로그램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자아동은 전반적으로 함께 어울릴 만한 또래가 없는 상황, 좁은 공간에서 여러

---

6) 남·녀 아동에게서 다르게 확인된 하위범주에는 두껍게 표기.

학년이 함께 복잡하게 지내는 물리적 환경에 부적응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9. 명확히 나타난 의미와 관련된 주제 군

주제군	하위범주(남자아동)	하위범주(여자아동)
또래가 없어! 어찌지?	.부모님이 등 떠밀어 온 센터	.센터는 두 번째 집!
	.또래가 없어 더 재미없는 센터!	.또래가 있으면 더 재미있겠지
	.동생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어!	.동생과 언니들이 있어 다행
가깝고도 먼 선생님!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다 바빠!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다 바빠!
	.좀 친해졌다 싶으면 바뀌는 새로운 얼굴	.좀 친해졌다 싶으면 바뀌는 새로운 얼굴
	.문제지 풀 때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	.문제지 풀 때는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
센터 프로그램 적용하기 나름?	.또 문제지 풀이야! 학교에서도 했는데.. 나가놓고 싶다	.학원보다 좋은 이유? 다양한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어!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외판 집	.지역아동센터라는 낙인!	.지역아동센터라는 낙인!
	.유유상종	.유유상종
센터 공간이 문제야!	.내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닌데	.남자아이들 떠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부딪히려고 한 것 아닌데.	.내가 부딪히려고 한 것 아닌데.

1차 양적조사 결과에서 여자아동과 달리 남자아동에게서 2년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이용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나타났었는데, 2차 질적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추가적 맥락 정보가 파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같은 센터환경과 프로그램 하에서 여아와 달리 남아는 흥미로운 자극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럴 경우, 오랜 기간동안 센터를 이용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자아동의 센터적응과 전인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지금과 달리 외부 프로그램과 활동중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근 사회복지 기관 및 교육기관과 협약 등을 맺어 활동공간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센터가 주로 저소득계층의 아동들만 이용을 하는 것 역시 센터의

낙인효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선정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오래 이용할수록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일반아동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아카데미,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등 유사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최대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체계와 프로그램을 조정해 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V. 논의

우선 1차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첫째, 부모자녀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들이 여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학업성적, 부모자녀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했으며, 사회적 자본 중에서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저소득가정이지만 여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비슷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여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와의 관계 수준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에서의 사회적 자원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학교 사회적 자본만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부모자녀관계와 지역아동센터, 학교 사회적 자본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여자 아동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아동기 초기에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가족 기능의 문제에 더 취약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Luthar, 1999: 임춘희 외, 2010 재인용)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이러한 점은 남자아동의 대인관계 특성이나 환경적응력, 정서적 상호작용이 여자아동과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Knight et al., 1988: 박찬욱·김혜리, 2010 재인용). 결과적으로 남, 여 아동의 성별차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사회적 자본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이 2년 미만인 여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사회적 자본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학교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의외의 결과다. 한편 2년 이상 센터를 이용한 여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영향 요인이었다. 이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등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면서 점차 부모의 영향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얻는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충분히 신뢰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이 2년 미만인 남자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학교 사회적 자본만이 중요했다. 한편, 2년 이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남자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결과 만으로는 충실히 해석할 근거가 부족한 부분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2차 연구를 시행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제한된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환경의 특성이 남·녀 아동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래, 교사와의 상호 관계가 활동적인 실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남자아동들에게 현재의 프로그램과 환경은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를 오래 이용하면 할수록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학년이 섞여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상, 남자 아동은 저학년 아동과의 관계를 여자 아동보다 더 경쟁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장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다보면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오히려 관계에 대한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이용기간에 따른 시론적 분석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의 프로그램을 남자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양화·다각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빈곤 계층의 아동들이 부모자녀관계수준보다 사회적 자본수준에 의해 자아존중감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영향을 주는 방식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년 이상 장기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경우 부모관계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남·녀 아동 모두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사회적 자본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아동에게도 자원으로서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주로 형성되는 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성차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환경조성 및 정서적 상호작용의 방식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높다.

본 연구는 서울의 일부 지역과 충청북도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자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수 간 관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역시 한계에 해당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다양한 사회적자본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변인들을 지역아동센터,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변인들을 친구, 교사와의 관계, 학교활동참여, 호혜성, 신뢰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인에 비해 아동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의 획득과 활용에 있어 다양성이 낮고, 네트워크나 호혜성 등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사회적 지지와의 구분이 모호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좀 더 정교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 남아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기간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남자 아동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환경이 조속히 조성될 필요가 있다.

김현정은 충북대학교에서 아동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충북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계층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체계이다.  
(E-mail: ingreenbi@hanmail.net)

최은영은 미국 Brandeis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국가와 젠더, social care, 여성노동이며, 현재 노동패러다임 변화와 사회권, 자활사업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eychoi66@cbnu.ac.kr)

## 참고문헌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pp.57-79.
- 김광혁(2008). 지역사회자본과 가족 소득의 변화가 아동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5, pp.5-28.
- 김미영(2013). 저소득 조손가족의 가족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청주.
- 김연희, 김선숙(2008). 사회자본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6, pp.103-127.
- 김영천, 김경식, 이현철(2011). 교육연구에서의 통합연구방법: 개념과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24(1), pp.305-328.
- 김은정(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pp.33-61.
- 김창곤(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청소년복지연구, 8(1), pp.91-107.
- 김태준, 최상덕, 장근영, 이기홍(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 현영섭, 변종임, 이덕현(2010).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주, 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pp.125-148.
- 김희수(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pp.63-88.
- 박성연(2010). 아동발달. (주)교문사.
- 박세경, 김형용, 강혜규, 박소연(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욱, 김혜리(2010). 초등 6학년 아동의 성별과 또래지위에 따른 공감하기 및 체계화하기 차이.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3(4), pp.127-148.

- 박통희(2010).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보, 44(1), pp.67-97.
- 석주영, 박인전(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pp.29-50.
- 신원영(2007).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신원영(201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ARCL 모델을 적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2.
- 신원영, 강현아(2008).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pp.57-87.
- 안우환(2006).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19(1).
- 안우환(2009).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자본과 교육포부 수준과의 관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7(1), pp.1-20.
- 유석춘, 장미혜(2003).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유석춘 외(공편역). 서울: 그린.
- 윤지은, 최미경(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2(5), pp.237-250.
- 이경은, 주소희(2008). 가족내외의 사회자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1), pp.113-131.
-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2010). 한국아동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 이은경(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탐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운경,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pp.104-130.
- 임연진, 나유미(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5(2), pp.61-69.
- 이재훈, 김경근(2007). 가족 및 학교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13(2), pp.175-208.

- 이훈, 신혜종(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흥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pp.4-16.
- 이현송(2008). 빈곤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관계.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pp.104-161.
- 임춘희, 이선형, 이경림(2010).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pp.71-98.
- 장미혜 외(2009).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사회적 자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원(2006).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3(1), pp.165-190.
- 정문자, 여종일(2009). 아동의 불안과 우울증상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변인. *아동학회지*, 30(3), pp.71-83.
- 정은정(2002).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완주.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2).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 조사 보고서*.
- 지역아동정보센터(2010). *2010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역아동정보센터.
- 최희철, 김병석(2009).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청소년학연구*, 20(2), pp.327-356.
- 한주리, 허경호(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pp.202-227.
- Col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 Jencks, C., Mayer, S.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up in a Poor Neighborhood. Inner-City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pp.111-186.
- Greene, J. C., Caracelli, V. J., Graham, W. F. (198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method evaluation design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 pp.255-274.
- Lin, N. (2008). *사회자본*. 김동윤, 오소현(공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2001년 원저발간).

- Pinketon, J., Dolan, P. (2007). Family support, social capital, resilience and adolescent coping.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2, pp.219-228.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pp.35-42.
- Schuller. T. (2001). The Complementary Roles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pp.18-24.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pp.205-220.
- Wilson, J. W. (1991). Studying inner city social dislocation: The challenge of agenc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pp.850-866.
- Woolcock, M. (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Economic Outcom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pp.11-17.

## Community Child Center Users' Parents-child Relationship,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 Application of Mixed Research Methods

**Kim, Hyun Jung**

(Chungbuk Youth Service Center)

**Choi, Eunyo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ve influence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community child center users' self-esteem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and center use period of two years. First, a questionnaire survey with 521 samples comprised of 4th to 6th elementary schoolers, and 1st graders of junior high school out of 50 community child centers was conducted. Data were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Then, in-depth interviews with 20 children were sequentially conducted for supplement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results and providing meaning structur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lativ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on the child's self-esteem between male and female children were quite different. For females, parent-child relationship still had an important influence and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also similar significance. This was not the case for the mal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enter use period. For females who have used the center more than 2 years, the center based- and, school based-social capit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esteem. For males, center based-social capital had even nega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In-depth interview additionally discovere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male children's self-esteem was probably due to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ctivity needs and different adaptation on peer relationships.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has additional effects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poor families. It was also found that current environment and center program contents do not well fit the needs nor demands of the male children. This implies that center use for a longer period of time would actually has a negative impact on self-esteem for some children. Therefore, diverse activitie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propensities of male children, and environments of centers should also be enhanced through networking of related organizations.

**Keywords:** Community Child Center, Social Capital, Self-Esteem, Gender Differences, Mixed Research Methods